

# 이 연 사 소 식

## 현대전자 대용량키편개발



鄭 夢 憲 사장

현대전자(대표 鄭夢憲)가 대용량의 키편(모델명 HKP1840T)을 개발, 지난달 13일 판매를 개시하였다.

이 제품은 국선 18회선에 내선 40회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시스템으로 그동안 수출해오던 모델을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한 것이다.

HKP1840T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축적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한 전자자식교환장치로 스피커편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송수화기를 들지 않고 착·발신이 가능하다.

## 쌍용컴퓨터 SAMS 설치 계약



朴 炳 哲 사장

쌍용컴퓨터(대표 朴炳哲)가 지난달 1일 有信 상호신용금고와 신용금고관리시스템(SAMS) 설치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설치되는 SAMS는 자금관리 및 이익률분석·영업속보 등의 각종 경영정보 전달기능이 강화되었다.

同社は 대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산인력이 부족한 금고사를 위해 同社의 교육센터에서 전산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주고 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사의 전산화는 신뢰성의 제고 및 금고사간의 경쟁력 강화, 업무의 능률화를 목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전문가시스템 개발도구 SKI-Ⅱ개발

또한 동사는 최근에 지난해 8월부터 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전문가시스템 개발도구인 SKI-Ⅱ(Ssangyong KAIST Intelligence)를 국내최초로 개발했다.

SKI-Ⅱ는 지난해 개발된 세무자문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용 도구인 SKI-Ⅱ를 일반적 자문형태의 전문가시스템

개발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다양화 시킨것.

상속세법 독과점 규제법, 공정거래법 등 제반 법률에 관한 자문과 기업공개·해외증권발행요건·의사결정 방법·경제정책 등의 경영문제에 관한 자문 및 통계분석·기술정보관리·여행안내 등과 같은 생활정보자문시스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동사는 올해안에 SKI-Ⅲ의 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 한국전기통신공사

#### 전세계에 한국기업정보서비스 제공



李 祐 在 사장

한국전기통신공사(사장 李祐在)가 지난 8월 16일부터 전세계 1백 60만 텔렉스가입자에게 한국기업정보서비스(KTA Information)를 제공하고 있다.

KTA Information은 국내외 바이어들이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를 텔렉스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 5천여

기업의 프로필을 입력저장한 자체 정보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내용은 국내제조업·수출입업·금융업 등의 기업 프로필인 자산·직원수·취급상품·주소 등.

이 정보서비스는 텔렉스를 이용, 서비스되어 별도의 이용 요금없이 텔렉스사용요금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한국데이터통신

#### 자동차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李 膺 孝 사장

한국데이터통신(사장 李膺孝)이 자동차관련 모든 업무를 전산화한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지난 달 초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했다.

주전산기 1대, 각종 통신장비 9대, 워크스테이션 11대등의 전산장비를 활용, 운용되는 이 시스템은 7만2백89대의 인천시의 등

록차량에 대한 각종 등록·이전·말소·정기점검관리와 연

간 46만 여건에 이르는 민원업무등 출고에서 폐차까지의 모든 업무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다.

同社は 이번 인천지역 온라인서비스 개시를 시발로 내년 상반기중에 나머지 지역을 모두 하나의 온라인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 콤텍시스템

#### 모뎀전문생산공장 준공



南 錫 祐 사장

콤텍시스템(대표 南錫祐)이 최근 경기도 부천에 2백평 규모의 모뎀전문생산공장을 준공했다.

### 삼익전자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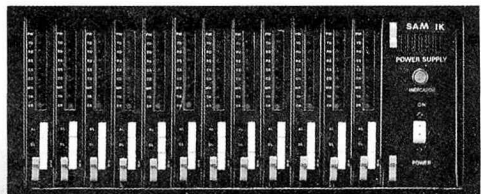
#### 4기종의 모뎀 형식승인 획득



李 載 桓 사장

삼익전자공업(대표 李載桓)이 최근에 집합모뎀인 SM-1200LU, SM-2400LU, SM-4800LU, SM-9600LU(사진) 등 4기종에 대해 체신부 형식승인을 얻었다.

이외에도 동사는 현재 다중화 장비로 동기·비동기 겸용 SU-PER-COM과 부가장치로 채널 수용능력 6인치의 MLA(Multi Line Adapter) 및 공중선 또는 전용선에서 주파수신호를



수신하고, 애널로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바꾸어 송신하는 장치 ARS (Audio Response System)도 자체개발 생산 중이다.

신흥공업국 들에 대한 수입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92년 이후의 유럽시장 통합에 대비하여 합작사설립, 판매 협력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 삼성반도체통신

### 알카텔社와 기술협력협정체결



姜 晋 求 사장

삼성반도체통신(대표 姜晋求)이 프랑스의 정보통신업체인 알카텔社의 포괄적인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을 통해 앞으로 교환기·광통신·무선통신 등 통신분야와 VAN 정보시스템사업, 반도체분야에서 기술협력, 공동연구개발, 세계시장의 공동개척 등을

위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정보처리 반도체소재를 포함한 첨단제품에 대한 기술이전·공동개발·제품생산·판매 등을 통해 유럽은 물론 세계시장을 공동개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사는 임원급을 위원으로 하는 협력위원회를 구성, 기술정보 제품샘플 전문기술인력 등을 상호교류키로 했다.

同社는 이번의 알카텔과 포괄적인 기술협정을 맺음에 따라 선진기술의 습득은 물론 EC(유럽공동체)의 아시아

## 고견데이터시스템

### 전화회선 이용, PICS 공급



徐 廷 豪 사장

고견데이터시스템(대표 徐廷豪)이 전화회선을 이용, 본·지사 및 해외지점간을 네트워크화하는 퍼스컴통신 시스템(PICS)을 공급한다.

PICS는 일본 NTT가 개발한 것으로 고속모뎀 접속장치를 채용, 전송속도가 평균 4800bps.

이 시스템은 주전산기로 IBM의 새퍼스컴인 PS2를 채택하고

있으며 터미널로 16비트퍼스컴 AT기종을 사용한다.

## 編輯後記

이번 서울올림픽은 첨단 전자올림픽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 중 전세계가 한 가족임을 실감케 한 종합정보망(WINS)은 경기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각국의 보도진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끝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이제는 잔치 뒤의 餘韻을 떨어버리고 모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내일을 준비할 때다.

×

×

이달에는 협회가 두가지 굵직한 행사를 개최한다. 14일의 「國家政策과 情報通信産業」 학술발표회와 25일의 「國家電算化 政策과 情報文化 擴散」 합동세미나가 그것이다.

특히 25일의 합동세미나에서는 電算網標準化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眞摯하게 개진되며,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政策對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 회원사와 관련업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하며, 지난달 ISDN 설명회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 데 감사드립니다.